

〈문제 1〉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가의 판사는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가의 용모는 인간에게 해가 된다면 동물을 해쳐도 좋다는 입장이다. 용모의 입장은 인간의 권리가 동물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가의 요지이다. 이 때 나,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가의 판사의 입장과 유사하다. 나,다에서 동물은 인간과 유사한 존재로 간주된다. 나에서 우리와 크게 달라 보이는 종들은 실제로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다에서 동물은 보호의 대상으로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하지만 동물의 권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나와 다의 입장은 다르다. 나에서 동물은 인간과 그 권리가 다를 바 없는 존재이다. 나에서 동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그 종 특유의 행동을 함으로써 자의식이 있는 존재로 간주되며, 나에서 종 우월주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나에서 인류애적 관점은 편협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다에서 인류애적 관점은 지고선인데 그 이유는 인간이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동물에게 친절한 것이 곧 인간에게 친절한 것으로 이어지며 동물에게 불친절한 것은 인간적 감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위주의 다에서 종 우월주의는 인정될 수 있다. 어디까지나 동물은 수단이고 그 목적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와 달리 다에서 동물들은 자의식적이지 못한 존재로 간주된다. 동물의 존재 목적을 인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나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즉가와 나,다의 논지의 차이점은 동물 보호에 대한 상이한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가는 이를 의무로 제시하지 않는 반면에 나와 다는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물을 보호할 것을 주장하나 종 우월주의에 대한 상반된 의견 및 인류애적 관점에 대한 상반된 의견, 동물의 자의식 여부에 대한 상반된 의견 등으로 구분된다. 이 때가와 다의 유사점이 또 발생하는데 곧 인간의 동물에 대한 위계 질서상의 상위를 인정한다는 점이고 이는 나와 구분되는 점이기도 하다.(1,012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도표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 근거하여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라의 도표가 통합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동물실험은 정당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라의 그림 1을 보면 인간이 죽인 동물인 실험용 동물의 수는 고양이가 죽인 동물, 즉 동물이 죽인 동물의 숫자보다 적는데, 이 때 식용 어류가 인간 역시 동물로 생존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해친 것, 즉 동물이 죽인 동물임을 감안해 볼 때 일단 실험용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라의 그림 2를 보면 인간과 비교적 가까운 종, 즉 정서적으로 가까운 개나 고양이 혹은 유전적으로 가까운 영장류 등의 동물들은 비교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에 비해 인간과 유전적으로 먼 종인 설치류 따위가 주로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라의 그림 3을 보면 동물실험은 인간의 아주 가벼운 질병에까지 유익한 영향을 주며 때로는 매우 무거운 질병의 치유에도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나와 다의 관점은 상이할 것이다.

나에서 종 우월주의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인간과 동물은 그 권리가 똑같다. 따라서 인간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동물 실험은 종 우월주의의 산물이며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나에서 동물은 있는 그대로 놓아 두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라의 그림 2는 나의 입장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종의 가깝고 먼 우월성에 따라 실험용으로 삼는 빈도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에서는 종 우월주의가 인정될 수 있고 동물의 존재 목적이 인간이므로 인간을 위해서 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변호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동물 실험의 숫자가 적음을 나타내는 그림 1과 그나마 인간과 가까운 것은 해치지 않았다는 그림 2 그리고 인간이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는 그림 3 등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 즉 인류애적 관점 발휘를 위해 비록 인간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켰으나 그 희생을 최소화하였고 인간이 이익을 많이 보았다는 점이다. 이런 논지의 연장선상에서 다의 관점에서 이 실험이 보다 더 정당성을 얻으려면 다의 라이프니츠처럼 실험 목적으로 이용된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여 그 목숨을 살리고 자연으로 돌리는 행위가 필요했을 것이다.(1,093자)

〈문제 1〉 ‘차이’와 ‘갈등’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가는 갈등의 유발 가능성에 관해 다루고 있는 반면 나와 다에서는 주로 갈등의 해소를 어찌 할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가에서는 자신과 같은 취향을 가진 이들에게 우호감을 나타냄으로써 다른 취향을 가진 이들과의 잠재적 갈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차이가 있으면 갈등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나에서는 차이가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갈등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이 많아질수록 기업 내부에서 갈등의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내는 나의 그림 2가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다에서는 공감을 통하여 상대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유사성을 느끼는 행위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나와 정반대로 차이를 없애서 갈등을 줄이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나에서 다루는 갈등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기업 내의 인종 간 차이와 연관된 갈등으로 일종의 단체 안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갈등임에 비해 다에서 다루는 갈등의 범위는 이와 비교하여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가에서는 아직 갈등의 상황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인간의 필연적 본성을 다루고 있지만 나에서는 이미 나타난 갈등의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이 때 아직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는 가와 유사하다. 또한 다에서 공감을 느낄수록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은 차이를 없애 갈등을 줄인다는 것에 해당하므로 차이가 늘어날 경우 갈등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와 나 간의 유사점 역시 발견할 수 있는데 나의 그림 1의 경우 인종 간 차이를 숨길수록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유발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에서 인간의 본성에 이타적인 것이 있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비해 가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신과 차이가 적은 집단을 선호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논지 간의 차이를 유추할 수도 있다. (1,005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르블롱 씨 부부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서술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라의 르블롱 씨 부부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즉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 및 그들 개인적 영역의 삶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영역간의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신념은 프랑스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관용주의를 바탕으로 알제리 인들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차이를 바탕으로 공존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그들은 소음과 냄새를 견디지 못하여 이사를 가야 했고 라마단을 끔찍하게 여기게 되는 등 개인적 일상생활에서 매우 큰 고통을 겪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념대로 알제리 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자책감과 알제리 인들에 대한 일종의 색안경 - 아랍인 치고는 - 과 같은 발언 등도 그들에게 내적 갈등의 사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의 주장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나의 주장은 특히 인종 간의 차이가 드러날수록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에 있으며 이것이 집단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르블롱 씨 부부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 르블롱 씨 부부의 삶의 방식과 알제리인들의 삶의 방식, 즉 인종적 차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들의 갈등 가능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르블롱 씨 부부의 경우는 개인적 삶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나에서 다루는 차이 및 갈등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기업이라는 공적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나의 입장은 라를 설명하기에 원초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다의 주장은 공감을 바탕으로 유사성을 느껴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갈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얼핏 개인적 영역으로 르블롱 씨 부부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르블롱 씨 부부가 몇 번이나 알제리 인들에 대하여 그들 입장에서 보면이라 언급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관용의 가치를 넘어 이해의 가치로써 동정, 연민을 넘어선 공감이다. 하지만 르블롱 씨 부부는 공감을 시도하였어도 이것이 실패한 것이다. 즉 다에서는 공감이 본능이라 했지만 공감이 그리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보여준다.(1,031자)

〈문제 1〉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가에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는 찾아볼 수 없다.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처한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타인의 행복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노예의 운명에 처한 이는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노예 노릇을 해야 행복하다. 이는 나와는 상당히 다른 논지이다. 나와 다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와 달리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를 인정한다. 특히 나의 경우 가와 달리 아내의 말로부터 운명, 즉 인륜에 반하여 행동할 것을 나타내는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나에서는 한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더 이상 터무니없는 짓 하지 않겠다, 팔자를 고쳤으면 한다 따위의 피해자인 아내의 언급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나에서는 가와 달리 행복을 위한 개인의 저항으로 인하여 갈등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이다. 반면 다에서의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는 개인의 행복이 늘어날수록 공동체의 행복 역시 증진되는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 때 나와 그 논지가 다른 점은 한 개인의 행복을 위한 행위가 비록 타인의 행복을 침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속한 전체 공동체의 행복의 합을 높이는 행위라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나에서 개인이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맞서 행복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에서 더욱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 때 가와 다가 유사한 점은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위하여 행복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동체의 규범에 맞서는 행위를 나에서는 인정하는 데 비해 가와 다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29자)

개인VS공동체

능동VS수동

<문제 2>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의 도표에 나타난 국가군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표준편차가 행복도의 넓고 좁음을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라에서는 B국가군과 C국가군이 등장하는데 B국가군은 행복도의 산술평균이 높고 표준편차도 높은 국가군이라고 할 수 있고 C국가군은 행복도의 산술평균이 낮지만 표준편차도 낮은 국가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행복도의 산술평균은 라에 의하면 행복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를 나 및 다와 연관지어 나와 다가 각각 이들 국가군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이상적이라고 여길지에 관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나에서는 한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을 침해해서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또한 이럴 때 행복을 침해당하는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침해하는 타인에 맞서 행복을 쟁취할 권리가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전체 행복의 양이 아니다.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개인 간 행복의 차이가 중요하다. 따라서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표준편차가 작아야 한다. 표준편차가 작은 국가군은 C이므로 나의 입장에서는 비록 전체 행복도가 낮더라도 C국가군이 B국가군보다 더 이상적으로 여겨질 것이다. B국가군이 비록 C국가군에 비해 상당히 행복도가 높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침해'가 더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침해가 덜 발생한다는 것은 곧 개인 간의 행복도 차이가 적다는 것이다.

한편 다에서는 전체 행복의 총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을 침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합만 높으면 상관이 없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 때 보다 이상적으로 여겨질 국가군에 대해 논한다면 당연히 B국가군일 것이다. B국가군은 상대적으로 편차가 높아 C국가군보다 행복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절대 행복도가 C국가군보다 높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국가군인 이유는 비록 행복하지 못한 개인이 존재하더라도 개인의 행복의 합만 높으면 상관없다는 다의 논지 때문이다.(970자)

〈문제 1〉 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을 적절한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그 유형들을 제시문 (가-1)과 (가-2)의 논지를 활용하여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나의 언어 현상은 모두 최근래 인터넷을 기반으로 생겨난 신조어 혹은 약어, 은어으로써 이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언어규범이다. 국문에 있어서의 언어규범이란 곧 맞춤법이다. 나의 등장하는 단어들은 모두 원래는 없었다가 최근래에 생긴 말들로 이런 말들을 신조어라고 한다. 하지만 신조어라고 할지라도 국어 문법을 지켜 만들어진 것과 축약과 변형 등으로 이를 어지럽힌 두 부류가 존재한다.

가-1의 요점은 사회의 유지 및 개인의 잠재력 발휘라는 측면에서 사회규범을 반드시 지킬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가-1의 태도로 나의 두 가지 단어군에 대하여 평가해 보면 손주병 이전의 단어들은 가-1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가뜩이나 신조어나 은어를 만든다는 것은 언어규범과 그리 가까운 행위가 아닌데 언어규범의 핵심인 맞춤법까지 흐트러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조어/은어의 사용은 가-1에서 말하는 ‘모두가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단절과 같은 예시가 그것이다.

반면 나의 후자의 단어군의 경우에는 가-1이 칭찬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자의 단어군들처럼 마구 비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비록 신조어, 은어일지라도 국어규범의 최소한은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2의 요점은 사회 발전을 위해 개인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일탈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역시 나의 두 언어군에 대하여 평가해 볼 수 있다. 우선 나의 첫째 언어군에 대해서 가-2는 비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축약이나 국문법 파괴 중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산물이 있다면 높이 평가할 것이다. 또한 나의 두 번째 단어군에 대해서도 가-2는 역시 높이 평가할 것이다. 특히 삼포시대와 같이 사회현실을 반영한 신조어들은 그야말로 가-2의 입장에서 신선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산물로 예시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925자)

〈문제 2〉 사회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참조하여 제시문 (라)에서 제시된 A국가와 B국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대마초 합법화 및 여성 사법시험 응시율 증가가 사회규범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가정 아래 다를 바탕으로 라의 두 도표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 다에서는 대마초 관련 규범이 변하지 않는 한국과 본래는 보수적이었다가 비교적 개방화 되어가고 있는 미국 그리고 본래는 개방적이었다가 보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가 소개된다. 이들은 모두 사회규범은 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대로 있지 않고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통합적 해석) 그러한 관점에서 A국과 B국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A국은 1999년 17.2%라는 낮은 여성 사법시험 응시율로 시작하여 꾸준히 여성 응시율이 증가해 38%에 이르렀다. 이는 A국이 마치 다의 미국처럼 보수적이었다가 갈수록 개방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A국을 보면 2002~2003년, 2006~2007년 등 일부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여성 사법시험 응시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A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규범이 개방적으로 변해갈 것이라 유추하는 동시에, 그것이 매해 똑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수의 저항에 직면하다가 다시 개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B국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38%로 변화가 일체 없는데 이는 다의 한국과 같이 사회규범의 변화가 없는 고착화 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B국의 경우 사회규범의 개방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래도 B국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B국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B국은 A국이 낮은 여성 응시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2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을 기간 동안 여성 응시율이 그대로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초반의 여성 사법시험 응시율 숫자는 오히려 B국이 2배 가량 A국을 앞서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B국이 사회규범에 있어서 개방적이었다가 보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다의 네덜란드의 사례와도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994자)



〈문제 1〉‘공감’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제시문 (가), (나), (다)를 읽을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 및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공감’(sympathy)이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본래‘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가의 아이히만은 본래 선량한 사람이였을지 모르나 그저 기계적으로 국가가 시키는 대로 유태인을 학살하였고 유태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즉 공감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한 유태인 학살로 이어졌다. 공감 능력의 부재가 살인을 불러온 것이다.

반면 나의 시적 화자는 자신이 알고 있다는 말이나 차라리 죽지 못해 탈이다 따위의 말들을 통해 포스터 속에 갇혀 있는 비둘기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시도함을 알 수 있다.

이들과 비교하여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게 보이는 태도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가의 아이히만의 태도와 비교하여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게 보이는 태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공감에 대한 모순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공감 개념 자체를 모르는 가의 아이히만과 달리 다의 아킬레우스는 공감을 알고, 공감을 알기에 공감을 할 줄 알고 이를 사용할 줄도, 즉 남에게 공감을 시킬 줄도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가련한 뤼카온의 살고 싶어하는 마음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는 공감을 하지 않고 살해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아이히만과 유사하나 살해의 과정에서 주체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저 국가가 시키는 대로 살해를 저지른 아이히만과 다르다. 또한 타인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인 공감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뤼카온에게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써 뤼카온이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모순점이 드러난다. 즉 공감을 통해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공감을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모순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나의 시적 화자와 다의 아킬레우스의 태도 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당연하게도 상대방에 대한 공감 시도 여부라고 볼 수 있다. 비둘기에게 공감하려 하는 시적 화자와 달리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게 공감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살해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아킬레우스의 뤼카온에 대한 태도는 아이히만의 일방적인 폭력이나 시적화자의 일방적인 공감과 달리, 무조건 공감을 하는 것도, 무조건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닌 상호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1,167자)

- 일방성과 쌍방성

〈문제 2〉‘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제시문 (가), (다), (라)의 사례를 활용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공감은 타인의 마음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시문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타인의 마음 상태를 상상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주체성이 있어야 하며 폭력을 예방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은 살인의 주체로써 유태인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능력의 부재를 나타내었고 주체성도 없어 국가가 시키는 대로 유태인을 학살하였다. 즉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똑같이 살인이라는 폭력을 저지른 다의 아킬레우스도 마찬가지이다. 아킬레우스 역시 아이히만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주체인데 뤼카온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대신 자신의 상상을 뤼카온에게 주입시켰으며 이는 심지어 그가 주체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에서 주체성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능력이 공감에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킬레우스 역시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였으나 그는 뤼카온의 입장에서 상상한 것이 아니다.

반면 라의 워딩턴은 강도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상상하여 상상 속에서 폭력의 주체가 되어 봄으로써 그 자신의 본성도 강도의 본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강도에게 공감하게 된다. 따라서 그의 실제 행위는 복수라는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용서라는 행위로 분출되었다. 이는 공감 능력이 심지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됨을 증명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세 제시문을 종합해 볼 때 워딩턴처럼 폭력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공감 능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상상 능력이다. 공감 본연의 정의가 타인의 감정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므로, 타인의 입장에서 상상하여 어느 정도 타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 봄으로써 공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체성이라 볼 수 있는데, 본성이 선량했던 아이히만이 만일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유태인을 학살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는 가정으로부터 이를 유추해낼 수 있다. 혹자는 원수를 용서한 워딩턴의 태도보다 공감 능력으로 오히려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주입함으로써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살인마저 정당화한 아킬레우스의 사례를 실리적으로 더 높이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아킬레우스는 공감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공감을 시키는 주체라는 점에서 워딩턴이 보다 더 공감 본연의 정의에 충실했음을 알 수 있다.(1,135자)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 공통된 주제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가,나,다의 공통 주제어는 아름다움이다. 가에서는 매화의 아름다움을, 나에서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을, 다에서는 우아함을 다루기 때문이다. 우아함은 곧 아름다움의 일종이므로 가,나,다를 관통하는 공통 주제어는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름다움에 있어서 여러 견해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아름다움에 있어 인간의 계산의 개입을 인정하는가를 두고 가와 나,다는 차이를 보인다. 가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인간의 계산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며, 특히 돈을 목적으로 개입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매화는 자연 그대로 놓아 두어야 아름다운 것이다. 반면 나,다에서는 인간의 계산이 개입되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 하지만 나,다 역시 인간의 계산의 개입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는가를 두고 차이를 보인다. 나에서 인간의 계산은 드러나도 된다. 무량수전을 등지고 있는 산 능선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무량수전이라는 인공 건조물이 합쳐져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만드는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더욱 배가시킨다. 반면 다에서는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간의 계산을 철저히 숨겨야 한다. 우아함의 본질은 철저하게 계산한 연기가 아무런 티도 안 남에 있기 때문이다. 즉 나에서는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합쳐져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형태이지만, 가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개입되는 행위를 개탄하고 있으며, 다에서도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꾸민 듯함을 피해야 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또한 다에서 아름다움은 타자의 시선에 의해 구성이 되는 것으로, 그 시선에 의해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움이 평가되지만,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평가하기 위한 타자의 기준이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나아가 다에서는 아름다움, 즉 아무런 티도 안 남의 우아함이란 인위적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는 것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지만 나에서는 산의 능선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고, 가에서도 매화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인정된다. 따라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가를 놓고 가,나와 다는 구분된다. 또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인간이 만든 아름다움이라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다의 아름다움은 착시,허위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임에 비해 가,나는 진실 그대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을 말한다는 차이도 있다.(1,156자)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을 나-1로, 능선의 아름다움을 나-2로.

〈문제 2〉 제시문 (라)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라의 다이아몬드 원석과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원석이 인간의 계산을 통해 가공되어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관계를 가진다. 이 그림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교훈적 관점, 그리고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돈을 목적으로 자연물에 손을 대는 것은 우둔하며 자연물은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만이 아름답다는 가의 주장을 평가해 볼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원석보다 그 값어치가 월등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가의 논지는 돈을 목적으로 자연물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손을 대면 아름다움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자연물이 훼손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편협한 관점이다. 자연물은 비록 훼손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무생물은 오히려 금전을 목적으로 가공하면 더 아름다워지면서도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할 수도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각 개인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상 다이아몬드 원석보다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더 아름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자연 그대로의 것만 아름답다는 가의 관점은 사회적 통념상 옳지 않다.

교훈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할 수도 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원석은 갈고 쪼는 고통스러운 세공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아름다워진다. 이 때 드는 노력을 무시한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 대한 폄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주장은 옳지 않다.

나에서는 자연과 인공물이 조화되어 이루어진 아름다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경우 인공물이지만 물방울이라는 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연과 인공의 조화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나의 관점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가의 관점은 자연 그대로의 것만 아름답다고 하고 어떠한 인위적 계산도 배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편협한 주장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에서는 아무런 티도 안 념의 아름다움, 즉 우아함을 말하고 있는데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물인 물방울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티도 안 내는 스프레차투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아름다움은 인위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연 그대로의 것만 아름답다고 하는 가의 주장과 충돌하게 된다. (1,252자)

〈문제 1〉 제시문 (가-2)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가-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다. 첫째 자신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둘째로 잠재적 기회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 성장 및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 속성은 장기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낙관성에 현실주의를 더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비교분석 할 수 있다. 나와 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낙관론자이다.

나의 돈키호테는 거인을 상대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거인에 맞설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거인에게 무작정 달려들고만 있으니 첫째 요소에 위배되고, 잠재적 기회를 노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가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 하지 않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재평가를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거인이 아니라 풍차라고 말해주는 산초의 피드백을 무시해 버린다. 그가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 성장 혹은 배움의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유추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거인을 상대하기 전에 한 일이라고는 고작 돌시네아님에게 기도하는 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비참하게 땅에 뒹구는 신세가 되었다. 이와 같은 류의 낙관성은 장기적인 행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다에 등장하는 여자는 자신이 얼굴이 얼었다는 점을 비롯해 신체 여러 곳에 불구가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고 연지를 바르면 입술이 고와지며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점에서 잠재적 기회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음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 성장 혹은 배움의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꺼이 부모들과 의논하고 동생들과 의논한다는 점에서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는 그녀가 현실주의적 낙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낙관성이 장기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그녀가 앞으로 행복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1,096자)

〈문제 2〉 제시문 (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1)을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라를 보면 시험 성적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낙관성과 자기 능력에 대한 인식의 현실성(이하 현실성)의 두 변수가 있다. 시험 성적은 현실성이 높을수록 높아지는데, 낙관성의 경우 시험 성적과 비례하려면 현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현실성과 낙관성 모두가 높은 경우 5점, 현실성만 높은 경우 4점, 둘 다 낮을 때는 3.75점을 보이는데, 현실성 없이 낙관성만 높을 때에는 도리어 낙관성과 현실성 둘 다 가지고 있지 못할 때보다 형편없는 2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시험 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낙관성이 아닌 현실성이고, 현실성 없는 낙관성은 낙관성이 없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1을 평가할 수 있다.

가-1에서는 긍정적 환상이 소개되는데, 어떤 조사에 따르면 긍정적 환상을 자주 품는 학생일수록 더 좋은 시험 성적을 받는 등의 예가 있다. 긍정적 환상에 동의하는 이들은 정확하고 유효하게 자기 평가를 하는 것, 즉 현실성을 갖는 것보다 긍정적 환상을 자주 품는 것이 실제로 정신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음이 라를 해석하면 곧바로 알 수 있는데, 라에서는 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낙관성은 도리어 시험을 망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긍정적 환상은 정신 건강 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현실성이 뒷받침된 낙관성 뿐이다. 즉 라의 입장에서 가의 긍정적 환상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이 될 수 있다. 현실성이 결여된 낙관론자들이 낙관성과 현실성 모두가 결여된 이들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즉 가-1의 긍정적 환상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주장이기도 하지만, 낙관성 자체가 있는 것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점에서도 틀린 주장이기도 하다.(920자)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가와 나는 낭비의 유용성 및 제거가능성에 관하여 상이한 의견을 보인다. 우선 가에서 낭비는 도락인데 도락은 곧 문학, 과학, 철학 나아가 생명 보존의 일부분까지 되는 유용한 것으로서 인간의 본능, 즉 원하는 자극에 어쩔 수 없이 소비하는 것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나에서 낭비는 벽돌공의 작업 속도를 더디게 하고 피로감을 쌓게 하는 쓸모없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낭비를 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길브레스의 모습이 나에 나타나 있다.

한편 다에서는 원근 단축이라는 이해방식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기억한다면 오히려 기억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기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 중 일부를 망각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 때 과거의 쓸모없는 기억이 낭비에 해당하고 망각한다는 것은 곧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망각 과정에서는 설명되지 못하는 변칙적인 것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의 입장에서 다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가에서는 낭비를 어쩔 도리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다에서도 변칙이 일어나서 낭비 제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가에서 낭비는 유용한 것으로 정의되는 데 비해서 다에서 낭비는 ‘쓸모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가에서 낭비는 제거가 불가능한 것인데 다에서는 제거하고 있으므로 가는 다의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방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나의 입장에서는 다의 이해방식을 비판할 이유가 얼핏 보면 없어 보인다. 나와 다는 모두 낭비를 쓸모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낭비를 제거해 나간다는 것도 나와 다의 공통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서 낭비는 과학적 관리법에 의해 철저히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임에 대비해 다에서의 낭비는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도 다를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합당하지 않아 보인다.(981자)

〈문제 2〉 제시문 (나)의 프랭크 길브레스는 벽돌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도 적용하여 채용담당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결합해서 어떻게 채용과정을 설계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정해진 원칙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뿐이다. (1,000자 안팎, 50점)

라의 실험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희미한 정도가 높을수록 사진을 인지하기 어려워지며 공개 시간이 짧을수록 사진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 변수 가운데 사진을 더욱 인지하기 어렵게 하는 변수는 사진의 희미한 정도이다. 공개 시간이 33초에서 122초로 꺾충 뛰었는데도 희미한 정도가 상일 때의 사진 인지율은 고작 0.1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길브레스는 채용담당관을 도와 우수한 인재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이 회사는 경쟁률이 매우 높으므로 채용담당관이 우수한 인재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길브레스는 제시문 나에서 벽돌공들의 어려운 작업을 쉬운 작업으로 바꾸어 준 전례가 있으니 채용담당관들에게도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채용담당관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이 회사의 지원자가 매우 많다는 것인데 이는 곧 제시문 라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인 희미한 사진을 인지하는 일과 같으므로 희미한 사진을 선명하게 바꾸어 주면 사진의 인지율이 급속히 증가하였듯이 수많은 지원자를 1차 서류심사에서 걸러내어 적은 수의 인원만 남기면 판별하는 일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서류심사에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일정한 정도로 사진이 선명해지면 프로젝트는 자동적으로 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반드시 치러져야 할 면접심사는 시간을 길게 두고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제시문 라에서 공개 시간이 긴 사진일수록 대학생들이 인지하기 쉬웠다는 점을 염두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채용 담당관 역시 면접심사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그 능력을 판별하기 쉬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랭크 길브레스는 제시문 나에서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던 벽돌공들에게 비계를 전담하는 일만 하는 노동자를 두는 등 분업화의 모습을 보여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얻었다. 따라서 채용 담당관들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과정에서 분업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제시문 나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프랭크 길브레스의 과학적 관리법이 채용담당관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1,027자)



〈문제 1〉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가에서 새로움을 보편화 혹은 절대화시켜 받아들이는 다수는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한 다수이다. 즉 새로움의 보편적, 절대적 수용은 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가에서는 다수가 행하는 모방과 같은 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나와 다에서는 새로움의 보편적, 절대적 수용이 일어나고 있다. 나에서는 걸작이 다수에게 존경을 받는데 이는 곧 새로움이 절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에서는 새로운 발견이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데 이는 곧 보편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와 다는 새로움에 대해 다수가 행하는 행위에 있어서 새로움의 창안 가능성을 두고 다른 견해를 보인다. 나에서 새로움인 걸작은 아류인 다수, 즉 범작 혹은 졸작에 의해 전승되는 존재이다. 또한 이 전승은 모방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한편 다에서는 새로움에 대해 다수가 행하는 행위가 나와 대부분 비슷하다. 다에서도 모방을 통한 연대로 새로움이 만들어지며, 새로움이 문자로 고정되어 시간과 거리의 간극을 뛰어넘어 전달된다. 하지만 나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다에서는 다수가 곧 창안자들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 가,나와 다의 또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가,나에서 다수는 새로움을 창조할 수 없는 존재임에 비해 다에서는 새로움이 다수에 의해 창안된다는 차이점이 그것이다. 또한 집단지성, 즉 새로움을 대하는 다수의 지혜로운 태도에 관하여서도 가와 다의 차이점을 짚을 수 있는데, 가에서는 새로움을 대할 때의 다수가 지혜롭다면 그것이 사회에 보편적, 절대적으로 작용케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다에서는 새로움을 만드는 것도 다수이며 이를 사회에 보편적으로 작용시켜 ‘그 이전의 것을 모두 잊게’ 만드는 것도 다수이다. 이 때 나에서는 다수가 지혜롭지 못하여 걸작이나 독창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지만, 다수가 새로움을 보편화시키는 것을 옳은 행위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가,다와 유사점 및 차이점을 갖는다.(948자)

〈문제 2〉 개별형 사이트에서 참여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곡을 다운로드한 횟수가 미공개 신곡들의 질을 반영한다는 가정 아래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평가하십시오. (1000자 안팎, 50점)

이 곡들은 모두 신곡으로 새로움이며 집단형 사이트란 집단이므로 곧 다수를 말함이다. 개별형 사이트의 다운로드 수가 곡의 질을 반영할 때 표 1과 표 2 모두 대체적으로 집단형 사이트의 다운로드 순위 및 수가 개별형 사이트의 그것과 대략적으로 비례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전 현상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그림 1의 곡8 같은 경우 곡9보다 질이 우수하지 못한 신곡인데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수 및 다운로드 순위가 집단형 사이트 1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예외는 표 1과 표 2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의 주장을 평가해 볼 수 있다. 가에서 새로움을 보편화, 절대화시키는 다수는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 즉 자체 내에 다양성을 상실하고 욕구가 하나로 통일되었으며 그 욕구가 저질스럽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의 실험결과를 통해 이를 평가하면 이는 옳지 않은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저급하다는 것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데 개별형 사이트 다운로드 수가 제일 많은 곡10은 가장 우수한 곡이며 집단형 사이트 1에서부터 5까지 모두 예외없이 곡10을 가장 우수한 곡으로 선택하고 다운로드 수 및 순위에서도 곡10이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선택은 저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예외가 다수가 결코 저급하지 않은 와중에서도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데 천편일률적이라면 다수는 앞서 설명한 곡9보다 곡8을 더 다운로드 많이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그림 1과 그림 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수는 해안을 가진 가운데 다양성도 갖춘 것이다. 이들의 다양성은 간단한 평을 달거나 다른 참여자들의 평을 읽을 수 있는 과정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대세인지 알면서도 결정한 예외라는 점에서 더 더욱 그 신빙성이 더해진다.(941자)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가,나,다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차이는 가,다와 나의 태도 차이이다. 가,다에서의 인간은 죽음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하여 나의 고릴라들은 죽음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들은 죽은 고릴라인 마체사로부터 모종의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행위를 반복하는데, 비록 베토벤과 에피 등 몇몇 고릴라는 태도가 달라 개체차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카루스를 비롯한 이들 대부분은 마체사가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은, 자신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일이다. 하지만 마체사가 반응이 없는 것은 죽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행위를 지속한다는 것은 이들이 죽음을 모른다는 단적인 증명이다.

또한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을 다룬다고 할지라도 가와 다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여러 방향으로 드러난다. 우선 인간의 본성의 차이를 가와 다는 다르게 보는데, 가에서 인간은 삶의 본능을 초월한 존재임에 비해 다에서 인간은 삶의 본능에 사로잡힌 존재이다. 따라서 가에서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이고, 다에서 죽음은 그 자체로 끝으로 정의된다. 또한 가에서 죽은 자는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할 대상으로 무덤은 죽은 자를 애도하고 산 자 가운데 붙들어 놓기 위한 것이며 매장 풍습 역시 풍요롭고 화려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데 비해, 다에서는 무덤이란 부패와 악취를 떠올리게 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곧바로 치워 버리게 하기 위한 시도로 매장 풍습 역시 간소하게 이루어진다는 차이를 볼 수가 있다. 즉 다에서 죽음은 공포와 기피의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가에서는 새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삶의 본능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것이 삶의 본능을 초월한 존재인 인간과 대조됨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때 다의 인간의 죽음에 관한 태도가 가의 새의 태도와 비슷하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가에서는 삶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을 비로소 인간됨을 위한 근본이라 하며 인간관을 다와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다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느닷없이 다가오게 될 죽음에 대하여 공포를 가지게 된다. (1,067자)

〈문제 2〉 제시문 〈가〉, 〈다〉 각각의 입장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1,000자 안팎, 50점)

라의 실험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험 1,2를 통틀어 배설물, 화장실 등 배설과 관련된 것에 접한 피실험자들은 죽음과 관련한 단어를 완성하지 못했다. 이를 보다 더 자세히 해석하면 실험 1에서는 똥 등을 주입받은 이들이 친구, 뱀 등을 주입받은 이들보다 죽음에 관련한 단어를 연상하지 못했고, 실험 2에서도 화장실에 있다 나온 사람들은 복도를 지나가던 이들보다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연상하지 못했다. 이는 가와 다의 입장 모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가에서 죽음은 기꺼이 함께 할 대상이고 인간이 삶의 본능을 초월하고 죽음을 삶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이상 기피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더러운 이미지인 배설물이나 화장실 등과 죽음을 연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러운 것과 함께하려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다에서 죽음은 생각 자체를 기피할 대상이고 공포 그 자체이며 삶의 끝이다. 또한 부패하는 것들의 악취와 연관이 있다. 즉 배설물과 관련된 단어에 노출된 피험자들은 죽음을 연상하게 되고, 그 결과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죽음과 관련된 단어 완성을 역설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가에 의한 해석이 다에 의한 해석보다 더 타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면 아마도 실험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 1에서는 무작위로 뽑힌 이들로 반면 실험 2에서는 한 대학의 기숙사에서 성별과 학년이 같은, 즉 보다 더 친근한 이미지의 사람들인데 죽음과 관련한 단어 완성률은 실험 1에서 30%, 실험 2에서 35.5%로 실험 2에서 더 높았다. 즉 이는 죽음이란 친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다에 의한 해석이 가에 의한 해석보다 더 타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면 실험에서 주어진 단어에 집중할 것으로 사료된다. 똥은 기꺼이 기피할 대상이고, 화장실도 기피할 대상이다. 친구와 뱀은 기피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다의 논리에는 허점이 없다. 그러나 가의 입장에서 복도와 함께하여 복도를 보고 죽음과 연관된 단어를 많이 완성했다는 점에는 허점이 있다. 여기서 가에 의한 실험 해석이 말이 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화장실과 상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이다. 복도 그 자체는 중립이므로 함께 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1,093자)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과학적 탐구에 대한 여러 관점을 나타낸다. 이 관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가,나,다의 공통 논지는 모두 인과관계를 활용한 과학적 탐구 방식에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과관계에 관한 견해는 가,나,다가 모두 다른데, 이들 견해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는 나,다와 달리 인과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가에서 두 사건의 결합은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집이다. 하지만 나,다는 인과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과관계에 의한 과학적 탐구에 대해 회의적이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나의 경우 인과관계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무한한 데이터의 존재가 기존의 인과론적 모델을 대신하여 상관관계를 형성한 뒤 패턴을 발견해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의 경우 인과론에 회의적인 이유는 인과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사건에는 영향을 끼치는 변수, 즉 이유가 너무나도 많기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들을 모두 알 수 없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나와 다의 공통점으로 연역적 추론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에서는 가설, 모델, 실험과 같은 연역적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며, 다에서는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이러한 논의를 보다 깊게 전개해 보면 가,다 및 나 역시 논지의 차이를 보이는데 가와 다의 첫째 공통점은 가와 다에서는 각각 인과관계가 없거나, 알 수 없어서 원인에 대한 추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다루므로 애초부터 원인에 대한 추론이 필요 없다.

또한 가와 다는 공통적으로 어떤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성,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와 다에서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특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데 비해 나에서는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상관관계가 패턴을 발견해 사건에 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나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페타바이트에 의한 상관관계라는 대안으로써 언급되는 데 비해 가와 다에서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방법 및 대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 (1,055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두 주장에 근거하여 [표 1], [표 2]에 나타난 중요한 점들을 기술하고, 제시문 〈나〉, 〈다〉의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연구 전체(주장 및 결과)를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표1]은 건강 상태와 교육 수준이 대체로는 비례함으로써 일견 라의 주장이 합당해 보이나 건강 상태가 하일 때에 고졸과 대학 이상에서 역전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라의 주장의 설득력이 약화된다. [표2]에서, 소득 수준이 하일 때에는 건강 상태가 교육 수준과 실질적으로 비례 관계를 이룸을 볼 수 있다. 반면 소득 수준이 상일 때와 중일 때에는 각각 불가피한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각각 건강 상태가 하일 경우와 건강 상태가 중일 경우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 대학 이상의 학력이 고졸인 학력보다 건강 상태가 하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는 학력이 고졸 미만의 학력이 고졸인 학력보다 건강 상태가 중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표2]의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면, 소득 수준이 하일 때에는 라의 주장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나 소득 수준이 중이거나 상일 때에는 발생하는 예외 수치로 인해 라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설득력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에 따르면 이 연구는 과학적 타당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에서는 무한에 근사하는 갯수의 막대한 데이터들을 통해 연역 없이 귀납만으로 과학적 탐구가 가능한 통계적 방법론이 제시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추출된 표본이 총합 천 명이 겨우 넘는 수로서 대단히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상관관계에서는 더더욱 그 오류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예컨대 [표2]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소득 수준 중일 때 건강 상태 중에서 고졸 미만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하여 소계 수 13이라는 한계를 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로써 라에서 제기된 두 주장이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페타바이트에 가까운 데이터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다에 의하면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변수가 너무 적어서이다. 우리가 한 사건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는 그 결과에 끼치는 원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건강 상태라는 결론도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에 미치는 변인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말고도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변수만으로 이를 파악하려 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의 관점에서 이 연구의 오류를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으려면 최대한 많은 변수를 설정해야 할 것이나 이는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나의 관점에서 제안되는 한계 극복방안보다 비합리적일 수 있다. (1,193자)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가,나,다는 공공성 실현의 주체로 각각 정부, 시민사회, 개인으로 달리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그들이 정의내리고 있는 ‘공공성의 실현’ 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에서는 공공성의 실현이란 곧 개인의 이익이다. 다에서 개인의 이익의 합이 공동체의 이익이고 다에서는 가, 나와 달리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에서는 공공성 실현의 주체가 개인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가와 나에서는 공동체라는 것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와 달리 공동체의 이익을 공공성으로 본다. 가에서의 공공성은 국가가 이성으로 공공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민의 안녕’ 이고, 나에서의 공공성은 시민이 이성으로 공권력과 논쟁하면서 발생하는 ‘시민의 이익’ 이다. 국민의 안녕은 공동체의 이익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시민의 이익도 공동체의 이익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나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공공성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와 나 역시 공공성 실현의 주체에 대해서 각각 정부, 시민사회로 달리 보는 이유는 그들이 다루고 있는 공적 영역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가에서 공적 영역의 범위는 고전적 의미의 공적 영역, 즉 국가적인 것에 한정된다. 하지만 나에서 공적 영역은 근대 이후 생겨난 개념으로 원래 사적 영역이었다가 공적인 의미를 획득한 사회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이 때 가에서 이성을 갖춘 자는 정부뿐으로 정부가 나서서 공공사업을 실행하는 등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하므로 실현 주체는 정부이고, 나에서는 시민사회도 이성을 매개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실현 주체는 시민사회이다.(825자)

〈문제 2〉 아래에 소개된 공공성의 속성이 제시문 (가), (나) 각각에 제시된 공공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자신의 답변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공공성이란 공중에 관련된 모든 것을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시된 공공성의 속성은 정보 공개의 원칙이다. 가와 나는 공공성을 공중의 이익으로 똑같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가 및 나의 공공성과 연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공중의 이익인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무엇이 공중의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 알기 위해서는 공중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와 나는 이성을 가진 이들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 공개의 원칙의 실현 가능성도 다르다. 가에서는 실현될 수 없고, 나에서 말하는 공공성에서는 실현될 수 있다.

가에서 실현될 수 없는 이유는 가에서는 정부만이 오직 이성을 가지고 힘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모두가 공중의 이익인 공공성에 대해서 알아 버리게 될 경우 강폭한 자나 무도한 무리들이 공중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 공개의 원칙은 가에서 제시된 공공성에서는 실현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정부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에서는 시민들 역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에 맞서 논쟁할 수 있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공중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중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아야 하며 이성을 바탕으로 비판적 판단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나에서는 이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다. 나에서는 이 원칙이 실현되는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신문이나 잡지 등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즉 공론장이 그것이다.(756자)



〈문제 3〉 제시문 (라)의 마을은 삼림 훼손을 막아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입장을 제시문 (가), (나), (다) 가운데서 선택하여 그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오. 그 방안들은 제시문 (라)에 나온 세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1,000자 내외로 쓰시오. 40점)

라의 마을의 문제는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이며 사적인 것이 공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이성으로 공중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나의 입장에 의한 해결책이 가장 적절하다. 나의 입장에 의한 해결책, 즉 정부에 의한 해결책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제가 정부가 다룰 수 있는 좁은 의미의 공적 영역인 ‘국가적인 것’ 보다 넓은 의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개인의 입장에서 이를 다룰 수 없는 이유는 다에서는 개인들의 이익의 합이 늘어날수록 전체의 이익의 합도 늘어난다고 하였는데 이 마을에서 나무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개인들의 이익의 합이 최대가 될 경우에 오히려 나무가 전부 베어지기 때문에 역설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나의 입장에 의한 해결책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의한 해결책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가 이성을 사용하여 비판적 판단력을 키우는 공론장의 역할이 바로 이 마을에서는 마을 자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고 각 시민의 역할은 마을 주민들의 역할이 되며 마을 전체, 즉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이들이 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라에 등장한 세 가지 규칙을 어기지 않으려면 세 가지 규칙에 의거하여 마을 자치회의 규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선 마을 자치회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열려야 할 것인데 이것은 규칙 3에 의한 것이다.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자치회에서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의 1주일 동안 각 개인별로 나무를 얼마나 벨 것인지 한 자리에서 결정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규칙 1에 의한 것이다. 규칙 2의 경우 중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각자가 선택한 후 마을 전체의 벌목량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지난 주의 벌목량을 알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 총 얼마가 베어지게 될 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인지 의미가 모호하므로 두 가지 경우를 다 포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마을 자치회에서 각자가 선택한 후, 전 주의 벌목량이 발표되어 전 주에 많이 벤 이들은 다음 주에 적게, 전 주에 적게 벤 이들은 다음 주에 많이 벨 수 있도록 조정해 준 뒤 다시 한 번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의 벌목량은 어찌 될 것인지를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삼림 훼손은 지양되어 마을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1,151자)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세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는 설득, 나는 다수결, 다는 협박을 들고 있다. 이들 방식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가의 설득이 나,다의 방법과 다른 점은 복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가의 설득이 나,다의 표결 및 명령과 다른 점은 나,다는 각각 다수와 소수,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강약 구도가 있지만 가에서의 설득은 평등한 관계라는 점이다. 따라서 가에서는 나,다와 달리 복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와 다에서도 동시에 복종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점이 많다. 우선, 복종에 있어서 자유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나와 다는 서로 다르다. 나에서는 약자인 소수도 말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만 다에서는 약자인 조선 임금은 아예 말할 자격이 없다. 조선 임금의 발언권 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다.

나아가, 대립 상황의 해결 주체도 나와 다는 서로 달리 설정되는데 나에서는 백성(다수)이 결정하고 다에서는 왕(칸이나 조선 임금)한 사람이 결정한다.

가와 다 그리고 나 간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바로 가와 다는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가의 설득은 연설가가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의 협박도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표결에는 표결 이전에 충분히 모두가 쟁론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대립 상황이 종결되는가의 여부가 달리 나타나는데 나에서는 대립 상황이 조속한 한도 내에 원만히 해결 되었지만 가, 다에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728자)

〈문제 3〉 제시문 (라)의 표에서 텔레비전, 일간신문, 온라인 매체 사이에 나타난 차이를 제시문 (가)에서 설명된 설득의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분석하시오.(1,000자 내외로 쓰시오. 40점)

설득의 세 가지 수단을 가지고 라의 표의 결과 가운데 텔레비전, 일간신문, 온라인 매체 간의 신뢰도 및 이용도 차이에 관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변수만이 신뢰도 및 이용도를 결정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 아래 신뢰도와 이용도가 서로 비례하는 상황에서 특이점은 텔레비전과 일간신문은 신뢰도가 비슷하지만 온라인 매체는 신뢰도가 매우 낮고 텔레비전은 이용도가 매우 높지만 일간신문과 온라인매체는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신뢰도에는 성품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 텔레비전이 성품이 제일 좋을 것이고 일간신문은 이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매체는 두 매체에 비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므로 성품이 두 매체에 비해 크게 낮을 것이다.

신뢰도와 이용도가 서로 비례하므로 성품은 이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성품이 둘 다 높은 텔레비전과 일간신문이 이용도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다른 두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성품은 신뢰도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용도에서는 다른 두 요인에 비해 적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도에서 다른 두 매체를 크게 앞지르는 텔레비전은 다른 두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추론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텔레비전은 연설가의 성품, 청중의 감정 상태 고무 능력, 논거나 논거임직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능력 모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간 신문은 신뢰도에서 큰 차이가 벌어졌던 온라인 매체와 이용도에서는 별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는 온라인 매체가 설득의 세 가지 수단 가운데 이용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모르는 두 가지를 텔레비전처럼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한 가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신뢰도에 성품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또한 그 능력은 일간 신문이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 때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온라인 매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감정 상태 고무 능력이라는 것이다. 두번째 견해는 논거나 논거임직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전자의 의견은 온라인 매체의 상식적 특성상 활자매체에만 의존하는 일간신문에 비해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매체의 연설가들은 검증된 일간 신문의 기자보다 논리력을 입증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후자의 견해보다 설득력이 있다.(1,212자)

[문제 1] ‘창조’와 ‘파괴’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800자 내외, 30점)

가,나,다 모두 창조와 파괴가 반복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나와 달리 다에서 창조와 파괴는 멈추는 것이다. 또한 가와 달리 나,다에서 창조와 파괴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가에서 창조와 파괴는 영원히 계속되는 고정불변의 양의 순환이다. 세계는 끝없이 자기창조와 자기파괴를 일삼지만 그 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한편 나,다에서는 혁명과 발전이 일어남으로써 창조와 파괴가 무언가를 발전시킨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나에서 그 혁명의 산물인 ‘창조적 파괴’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자본주의의 끝없는 발전을 가져오는 데 비해, 다에서는 혁명이 자본주의를 무너트리는 역할을 한다. 다에서 파괴는 기존 질서를 무너트리는 힘이다. 자본가 즉 부르주아가 기존 질서를 무너트린다는 것은 나와 다가 동일하나, 다에서 봉건 영주라는 기존 질서를 무너트린 부르주아는 착취라는 행위를 통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탄압하게 된다. 이 때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해서 또다른 혁명이 일어나 부르주아 계급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 다는 주장하는데, 이것이 다에서 주장하는 마지막 파괴이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그들이 지배계급으로써의 자신의 위치를 지양함으로써 인해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곧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되어서 더 이상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와 다는 임금노동에 관한 견해도 서로 달리 전개하는데, 나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상승한다고 서술한 데 비해, 다에서 임금노동은 근대 산업의 발달이 촉진될수록 오히려 그것이 노동자들 간의 경쟁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일치단결시키는 담합의 힘, 즉 자본가들 자신을 몰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837자)

[문제 3] 제시문 (나)와 (다)의 주장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의 그림을 해석하시오. (1,000자 내외, 40점)

라의 그림 1과 그림 2 사이에는 1974년이라는 기점이 존재한다. 그림 1을 보면 소득이 5분위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르주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최상위 20%의 가계소득이 프롤레타리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최하위 20%의 가계소득보다 상당히 낮고, 다른 세 계층보다도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간당 생산량 및 시간당 실질임금 그래프가 역시 1974년을 기점으로 그 우열 관계가 역전되는 그림 3에서 실질 임금이 생산량을 앞지르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곧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살 만 했다는 것이며, 부르주아가 무언가 ‘창조적 파괴’ 를 일으켜야 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1974년 이후 부르주아는 창조적 파괴를 일으킨 것이며, 이로 인해 그림 2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가계 소득과 계층은 서로 비례하게 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해당하는 최하위 20%의 가계 소득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다.

나의 입장에서 이를 해석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74년에 부르주아의 이익을 위하여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 결과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림 3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시간당 생산량과 시간당 실질임금 사이의 간극을 볼 때에, 앞으로도 이 간극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나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다의 입장에서 이를 해석할 경우에는 그림 2의 현상 및 그림 3의 점점 생산량이 실질임금을 앞지르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는 현상으로 보일 것이다. 따라서 다에서는 이러한 착취가 계속되면 언젠가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하여 혁명이 일어나고, 만인의 발전이 곧 만인의 발전이 되며, 부르주아는 몰락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따라서 앞으로 그림 3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그래프 간 간극은 언젠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969자)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에서 ‘중용’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비교하고,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와 (나)의 주장을 각각 평가하시오. (1,000자 내외, 50점)

가의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치우치거나 미치거나 하는 것이 없으므로 정의된다. 즉 중간에 서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중용의 방식은 가에서 제시하는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어떤 처지에 있던간에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부한 자는 부하게,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오랑캐인 자는 오랑캐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 중용을 지키면 정치의 흥성을 이룰 수 있지만, 중용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매우 적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반면 나의 중용은 각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생활 태도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중용의 방식은 나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을 지키면서 정치를 흥성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이 등장하여 문왕과 무왕의 정치와 같은 흥성한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와 달리 권력이 중간계급의 손에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가와 달리 중용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여러 명이라는 점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다의 관점은 훌륭한 개인인 천재가 나타나서 세상을 혁명으로 이끌어 그 이전의 패러다임을 깨고 사회를 계몽하며, 이러한 천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듦으로써 사회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으로 요약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와 나를 평가해 볼 때 모두 타당하지 못한 관점이라 볼 수 있다. 우선 가의 관점에서는 천재도 하나의 개인이고, 중용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군자도 하나의 개인이라는 면에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다. 소수가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서도 일치할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 말하는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저 자신이 할 일만을 하게 강제한다면 천성적으로 자유로운 천재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의 관점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인 중간계급이 사회를 이끄는 집단이 되어 그 중용을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으므로 특출한 개인을 강조하는 다의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다에서 천재는 제한된 몇 가지 인간 유형, 보통 사람으로써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중간계급은 어디까지나 ‘보통사람’ 인 것이다. 이런 경우 천재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묻히게 된다.(1,062자)

[문제 2] 제시문 (라)에 설명된 대표값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시문 (가), (나), (다)의 주장을 각각 논의하시오. (1,000자 내외, 50점)

라에서 등장하는 세 대표값인 중앙값, 최빈값, 평균값을 가지고 가,나,다를 각각 논의할 수 있다. 가,나,다는 모두 이상적인 사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그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덕목으로 중용을 꼽고 있다는 것이 가,나의 특징이며 이상 사회의 실현 주체를 각각 군자, 중간계급, 천재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그 주체에 관하여 세 값으로 정리하자면 군자와 천재는 소수인데다가 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값인 강화군(31)이 될 것이다. 반면 중간계급은 가장 그 수가 많은 최빈값(67), 즉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 갈 사회와 그를 위해 할 행위는 또 다르게 정의될 것이다.

이 때 가와 나에서는 이상적 사회를 위한 필수 덕목으로 중용을 꼽고 있다. 가에서 말하는 중(中)은 그야말로 지나치거나 미침이 없고 기울어짐과 치우침이 없다는 점에서 중간값에 해당할 것이다. 가의 군자들은 이 중에 따름으로써 정치의 흥성을 이루어 내는데 이 정치의 흥성은 군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평균값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나에서 말하는 중용은 각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생활방식으로 누구나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빈값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중용에 의해 실현되는 사회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극단적인 민주주의도, 과두정치도, 폭군정치도 아닌 중(中)의 정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나에서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에 해당하는 중간계급이 최빈값에 따른 중용을 행하면 중앙값의 특성을 가진 이상 사회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천재는 강화군이고, 이들은 중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극소수라 볼 수 있는데, 이 천재에 의해서 이끌릴 사회는 역시 평균값의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933자)

[문제 1] 제시문 (나), (다)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30점, 800자 내외)

가의 밑줄 친 부분은 민족이 문화에 의해 정의된다는 관점으로 연속성에 대한 느낌, 공유된 기억, 집단의 운명에 대한 공통 관념 등 문화적 공통성에 의해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나와 다의 입장에서 모두 타당하지 못한 내용으로 평가될 것이다.

우선 나의 경우 이념을 민족 정체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 이념이 다르다면 같은 역사를 공유한 한국 국민이라도 한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 국민도 마찬가지로 이념이 다르다면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연속성에 대한 느낌과 공유된 기억이 있더라도 이것이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집단의 운명에 대한 공통 관념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생겨날 수 없는 것이며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이 관념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다의 경우에서 검토해 보아도 역시 타당하지 못한 것이 다의 경우 민족적, 애국적이라는 말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힐난하며 민족주의 자체에 대하여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즉 민족이라는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에서 강조하는 것은 민족이 아니라 계급으로 같은 계급끼리는 집단의 운명에 대한 공통 관념을 공유하지만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예컨대 중산계급과 노동자는 연속성이나 공유된 기억 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그들을 같은 민족으로 대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민족의 정체성 구성 요소 3가지 가운데 연속성과 공유된 기억에 의해 민족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것은 나,다 모두 옳지 않게 판단한다. 다만 집단의 운명에 대한 공통 관념을 피아의 구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의 밑줄 친 부분이 완전히 타당성을 잃는 것만은 아니다.(885자)



[문제 3] 제시문 (라)의 표는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아닌지에 따라 가깝게 느끼는 국가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다름을 보여준다.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쪽이 민족의식이 강하다고 가정하고, 제시문 (가),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표를 해석하시오. (40점, 1,000자 내외)

가에는 민족의 정체성 규정 요건으로 3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핏줄에 근간하고 선천성과 불가변성을 지닌 근원주의이고 둘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게 되는 상황주의이다. 상황주의는 특히 개인, 집단의 이해관계 및 정치적 요소와 관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소위 문화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분하는 고유한 역사, 상징, 문화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들 세 가지 관점 가운데 나의 관점과 유사한 것은 상황주의이다. 나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라 볼 수도 없다 주장하는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당히 연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의 표를 해석하면 민족의식이 강하던 강하지 않던 간에 미국은 1위이다. 특히 강하지 않은 쪽이 미국의 선택률이 더 높다. 이 때 미국이 1위인 이유는 상황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상황주의상 미국은 우리나라와 경제, 정치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동맹국이다. 따라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것이다. 결국 타 국가와 가까이 여기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상황주의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역시 민족의식이 강하던 강하지 않던 2위이다. 이 때 물론 상황주의의 영향을 더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족의식이 약한 집단이 강한 집단보다 북한을 2위로 꼽지 않았다. 북한은 우리와 혈통이 같기 때문에 선천적인 혈통을 말하는 근원주의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하지만 민족의식이 약한 집단은 북한을 나에 언급된 대로 동족, 아니 인류로도 보지 않을 사람도 많을 것이다.

다음으로 민족의식이 강한 쪽에서는 중국을,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일본을 더 가까운 나라라 뽑았는데, 이는 문화주의의 영향 때문이다. 민족의식이 강하다면, 문화주의의 요소인 역사를 결코 잊지 않아 일제 식민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민족의식이 약한 부류는 상황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므로 공산 중국보다 자유 일본을 더 가깝게 뽑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반적으로 민족의식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 상황주의의 영향을 특히나 크게 받으며, 민족의식이 강한 부류에서도 미국이 1위인 만큼 상황주의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 다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근원주의이고 문화주의는 가장 적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1,135자)